釋讀 口訣 音借字의 讀法에 對하여

金武林(江陵大 國語國文學科)

1. 導入

漢字의 音과 訓을 이용하여 국어의 助詞나 語尾를 표기한 口訣은 그 표기의 역사가 古代 國語로 소급되면서 中世 國語의 以前의 국어를 再構하는 데에 하나의 試金石이 될 素地가 있다. 本稿는 音讀에 의하여 표기화된 口訣 漢字를 대상으로 口訣字의 讀音에 대한 살펴 본 것이다. 口訣 文獻은 우선적으로 高麗 時代의 初期에서 中期에 이르는 釋讀 口訣 文獻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1] 특히 口訣 漢字音은 국어의 傳承 漢字音과의 관련을 통해서 볼 때 脈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傳承 漢字音의 固定이라는 측면에서도 示唆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高麗 時代 音借 口訣字 目錄[2]

* 本字를 괄호한 것은 音讀 口訣의 것.

1) 本稿의 대상이 되는 釋讀 口訣 文獻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大方廣佛華嚴經疏」: 12 세기 중엽이나 그 이후
「大方廣佛華嚴經」: 12 세기 말에서 13 세기 초
「舊譯仁王經」: 13 세기 중엽 이후
「金光明經」 13 세기 중엽 이후
「瑜伽師地論」: 13 세기 말엽

2) 音借 口訣字 目錄은 白斗鉉(1997)과 정재영(1997)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表音은 기존의 관례를 수용하여 보인 것이므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本稿의 논의는 口訣 漢字音에 관련된 것이므로 주로 表音에 대한 再考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本字	口訣字	表音	朝鮮音	上古音	中古音	備考
只	ㅅ	ㄱ/(기)	지(飜小) 기(東新三) 짏/징(東)	tɟje	ʈɕje	
艮		ㄱ/ㄱ/ᄀᆞᆫ	ᄀᆞᆫ(三聲) ᄀᆞᆫ(東)	kən	kən	
加	力/加	가	가(敎簡) 강(東)	keai	ka	
(可)	可	가	가(六祖) 캉(東)	khai	kha	
去	土/去	거	거(飜小) 컹(東)	khja	khjo	
古	口/古	고	고(飜小) 공(東)	ka	ku	
果	果/ホ/曰/人	과	과(六祖) 관/광/황(東)	kuai	kuɑ	

隱	ㄱ/阝	ㄴ	은(三施) 혼(東)	iən	jən	
乃	乃	나	내(飜小) 냉(東)	nə	nɐi	
那	月	나	나(六祖) 낭(東)	nai, nuə	nɑ	
奴	又/女	노	노(宣小) 로(宣小) 농(東)	na	nu	
尼	ヒ/尼	니	니(宣中) 닐(三聲) 닒/닝/잉(東)	njei	ni	

多	丨/夕	다	다(六祖) 징/당(東)	tai	tɑ	
(大)	大/ナ	대	대(救簡) 태(宣中) 탱/땡/ 땅/탕(東)	dat, dai	dɑi, dɑ	
底	氐/底	뎌	뎌(三施) 뎨(宣小) 지(飜小) 징/뎽(東)	tiei	tiei	
丁	丁	뎌/ 뎡	뎡(宣孟) 징(註千) 딩/뎡(東)	teŋ, tieŋ	ʧæŋ, tieŋ	
刀	刀	도	도(六祖) 돕/돕(東)	tau	tɑu	
斗	斗	두	두(訓蒙) 둡/중(東)	tɔ	təu	
知	矢/知	디	디(六祖) 지(註千) 딩(東)	tje	ʧje	
(地)	土	디	디(救簡) 띵(東)	djai	di	
止		디	지(飜小) 징(東)	ʧja	ʧjə	
冬	夂	둘	동(呂約) 동(東)	tuŋ	tuoŋ	
矣	厶/矣	듸	의(飜小) 읭(東)	ɣjə	ɣjə	

乙	ㄴ/乙	ㄹ	을(飜老) 읧/왈(東)	jet	jĕt	
尸	尸	ㄹ	시(宣小) 싱(東)	ɕjei	ɕi	
羅	丶/ㅅ/罒/羅	라	라(六祖) 랑(東)	lai	lɑ	
淚	戶/戶	러	루(宣小) 류(訓蒙) 뉴(類合) 뤼(釋要) 뤙/렝(東)	liwei	lwi	
呂	呂	려	려(飜小) 녀(宣小) 령(東)	lja	ljo	
(奴)	又	로	노(宣小) 로(宣小) 농(東)	na	nu	
(彔)	彔	록	록(救簡) 록(東)	ljwɔk	ljwok	'綠'의 음으로 처리
(了)	了	료	료(六祖) 룡(東)	liau	lieu	
利	刂	리	리(六祖) 니(類合) 링(東)	ljei	li	
利	禾/禾/禾	리	리(六祖) 니(類合) 링(東)	ljei	li	

音	亠/音	ㅁ	음(供養) 흠(東)	jəm	jěm	
𠂉	𠂉	마	마(新字)			
(麻)	广/麻	마		mua		
彌	尒/久/尒	며	미(六祖) 밍(東)	mjei	mje	
(面)	丆	면	면(六祖) 면(東)	mjan	mjɛn	
毛	毛	모	모(六祖) 뭅(東)	mau	mɑu	
(未)	未	미	미(供養) 밍(東)	mjwəi	mjwəi	

邑	口/巴/邑	ㅂ	읍(六祖) 흡/하ㅂ(東)	jəp	jěp	
火	火	ㅎ	화(六祖) 황(東)	huai	hua	

叱	七/叱	ㅅ	즐(宣小) 칠(東)	ʈhjet	ʈʂjĕt	
沙	氵	사	사(六祖) 상(東)	ʃeai	ʃa	
(舍)	舍/亼	샤	샤(六祖) 샤/셕(註千) 사(釋要) 샹/상(東)	ɕia	ɕja	
(西)	一/西	셔	셔(六祖) 션/셍(東)	siei	siei	
(所)	戶/所	소	소(六祖) 송(東)	ʃjo	ʃja	
(小)	小	쇼	쇼(救簡) 소(釋要) 숑(東)	sjɛu	sjau	
(是)	乀	시	시(六祖) 씽(東)	ʑje	ʑje	
示	二	시	시(六祖) 시/기(三聲) 씽(東)	ʥjei	ʨi	
賜		시	스(供養) 숭(東)	sje	sje	
(時)	时	시	시(六祖) 씽(東)	ʑjə	ʑjə	
(士)	士	스	스(六祖) 쑹(東)	ʨjə	ʨjə	
(四)	四	스	스(六祖) 숭(東)	sjei	si	
(生)	生	싱	싱(六祖) 생(釋要) 싱/셩(東)	ʃeŋ	ʃɐŋ	
(兒)		싀	싀(飜小) 잉(宣小) 예(註千) 아(釋要) 싱/옝(東)	ŋje, ŋie	ɾje, ŋiei	

(阿)	𠂤	아	아(六祖) 아/옥(註千) 항(東)	ai	ɑ	
(厓)	厂	애	애(宣小) 의(三聲) 의(兒學) 의(釋要) 욍/앵(東)	ŋe	ŋai	崖의 音으로 처리
也	つ/也	야	야(飜小) 양(東)	ʎiai	yᵛa	
(於)	方/オ/今	어	어(供養) 오(宣大) 홍/헝(東)	ja	jo	
(言)	亖/言	언	언(六祖) 은/언(東)	ŋjan	ŋjɐn	
(殷)		언	은(宣孟) 은/안(註千) 혼/한/현(東)	iən, ean	jən, æn	
亦	亠/丶/八	여	역(供養) 역/익(註千) 역(東)	ʎiak	yjɛk	
與		여	여(宣中) 영(東)	ʎja	yjo	
(曳)	曳	예	예(飜小) 옇/옝(東)	ʎjat	yjɛi	
(午)	午/𠂉	오	오(六祖) 옹(東)	ŋa	ŋu	
(五)	五	오	오(六祖) 옹(東)	ŋa	ŋu	
(玉)	玉	옥	옥(飜朴) 옥(東)	ŋjwɔk	ŋjwok	
(臥)	卜	와	와(六祖) 왕(東)	ŋuai	ŋuɑ	
(要)	覀/要	요	요(飜小) 룡(東)	jau	jɛu	

于	于	우	우(宣小) 웅(東)	ɣjwa	ɣju	
又	又	우	우(宣論) 역(新字) 율(東)	ɣjwa	ɣju	
衣	衤/衣	의	의(六祖) 횡(東)	jəi	jəi	
亦	丿	이	역(供養) 역/익(註千) 역(東)	ʎiak	yjɛk	
(已)	已	이	이(六祖) 잉(東)	ʎjə	yjə	
(伊)		이	이(飜小) 힝(東)	jei	i	
(印)	印	인	인(六祖) 힌(東)	jen	jěn	
(應)		이	응(六祖) 흥(東)	jəŋ	jəŋ	

(上)	上	자	샹(飜小) 상(釋要) 샹/쌍(東)	ʑjaŋ	ʑjaŋ	
齊	斉/斉	져	졔/즈(宣小) 지/재(宣論) 즈/졔 /지(三聲) 졔/자(釋要)	ʨiei	ʨiei	
子	子	즈	즈(宣中) 자(釋要) 중(東)	ʦjə	ʦjə	

(土)	土	토	토(六祖) 동/통/똥(東)	tha	thu	

下	下	하	하(六祖) ᄒᆞᆼ/강/ᄫᆞᆼ(東)	ɣea	ɣa	
乎	ノ/ㄱ/乎	호	호(飜小) ᄒᆞᆼ(東)	ɣa	ɣu	
(戶)	尸/戶	호	호(宣論) ᄒᆞᆼ(東)	ɣa	ɣu	
屎	ㅈ	히	시(訓蒙) 히/시(全玉) 싱/힝(東)	hjei, ɕjei	hi, ɕi	

3. 各論[3)]

2.1. 艮(艮) -ㄱ/ㄱ/ㄹ-

釋讀 口訣에만 쓰인 '艮'은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서 쓰였다. '艮'의 讀音은 'ㄱ/ㄱ/ㄹ'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本字와의 관련에서 音借에 의한 讀音의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口訣字이다. 「金光明經」과 「瑜伽師地論」에 쓰인 '艮'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口訣字 '艮'의 용례

가. 「金光明經」

涅槃ㅣ ᄒᆞᆫ尸ㅅ入ㄱ 皆是ㄱ 妄見ㅣㄱㄴ 能分 度ノ尸ㅁ 無ᄂᆞᆫㄱㅣ尸矣 餘艮・(3: 5)

나. 「瑜伽師地論」

謂尸 我ㅋ 我ㄱ 今艮 者 何ㅎ 所ᄒᆞ十 在ᄂᆞᆫㅅㄱㅣㅂᄒᆞ七ㅁᄂᆞᆫ尸(20: 8)

謂尸 我ㅋ 我ㄱ 今艮 者 爲何所ᄒᆞ十 在ᄂᆞᆫㅅㄱㅣㅂᄒᆞ七ㅁノ尸(20: 22)

謂尸 我ㅋ 我ㄱ 今艮 者 何ㅎ 所ᄒᆞ十 在ᄂᆞᆫㅅㄱㅣㅂᄒᆞ七ㅁノ尸(20: 25)

특히 「瑜伽師地論」에 나타난 '今艮'은 문법적 맥락에서 거의 동일한 기능으로 파악되는 '今ᄂᆞᆫㄱ'과 '今ㅅ' 등과의 관련에서 讀音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가지 口訣字 '艮'의 讀音을 'ㄱ/ㄱ' 등으로 추정한 것은 '今ㅅ'과 '今艮'을 동일한 어형의 異表記로 간주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今ㅅ'과 '今艮'을 동일한 기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약간의 異議가 없을 수 없겠다. '今ㅅ'는 부사어와 관형어로 모두 解釋될 수 있으나, 「瑜伽師地論」에서 '今艮'은 항상 '今艮 者'로만 사용되어 뒤의 체언 '者'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今艮'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今ᄂᆞᆫㄱ'과 '今ㅅ'으로부터 추출되는 '-ㄱ/기'와 '-ᄒᆞᆫ'이라는 末音添記 또는 語尾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4)]

---

3) 論議의 순서는 目錄으로 제시한 口訣字에서 讀音에 의심이 가는 音借字를 차례에 따라 논의하였다. 本論에서의 口訣字는 用例를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의상 本字로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미리 諒解를 구하여 둔다. 文獻에 대한 略號를 쓸 경우에는 南廣祐(1997)의 「古語辭典」에 따랐다.

4) '今ᄂᆞᆫㄱ'과 '今ㅅ'에 대한 用例와 설명에 대해서는 이건식(1997)을 주로 참고하였다.

(3) '今ㅅㄱ'과 '今ㅎ'의 용례

가. 故ᄆᆞ 我ㄱ 今ㅅㄱ 略ᄒᆞ 佛ᄉᆞ 歡ㅅ白ㅁㅏㅌㅗㅣㅅᄇᆞㅂㅣ(舊譯仁王經: 11:13) / 今ㅅㄱ 於我ᄋᆞ(舊譯仁王經 상: 11)

나. 今ㅎ 月光ㄱ 三寶ᄉᆞ 禮ㅅ白ㅁㅏㅌㅗㅣㄱᄀᆞᆞ(舊譯仁王經 상: 11) / 今ㅎ 此 義ㄷ 中ᄋᆞ十(瑜伽師地論20: 11)

이러한 用例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서, '今ㅎ'과 '今ㅅㄱ'이 복합되면 '今ㅎㅅㄱ'이 되고, 여기에서 'ㅎ'이 탈락한 '今ㅎㅅㄱ'은 현실적으로 '今ㅎ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에 의하면 '今ㅎㄱ'은 '-ᄀᆞᆫ'으로 독음되므로 漢字音과의 관련에서 '今良'의 '-ᄀᆞᆫ'과 동일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특히 「金光明經」에 나오는 難解吐의 하나인 '今ㅎㄱᆞᅀᆞ'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今ㅎㄱᆞᅀᆞ'의 '-ᅀᆞ'를 강세 첨사 '-사/ᅀᅡ'로 풀이한다면, '今ㅎㄱ'은 '今良'과 동일한 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口訣字 '良'은 'ㅎㄱ'을 한 글자로 나타내고자 한 의도에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今良'의 讀音은 중세 국어의 '今'에 대한 새김인 '엳'을 근거로 '역'을 再構하면 '역+은/ᄋᆞᆫ→여근/여ᄀᆞᆫ'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엳'의 用例

가. 엳 닷쇄만 두면 가리라(飜老 상: 11)

나. 엳 금(今)(訓蒙 하: 2)

cf. 쇼칠 아히ᄂᆞᆫ 여태 아니 니러나냐(靑丘)

엿히 엇지 보내지 아니ᄒᆞᄂᆞᆫ다(捷蒙 1: 19)

'역~엳'의 形態 交替는 後述할 '餘'의 새김인 '남ᄌᆞᆨ/남즉~남ᄌᆞᆺ/남ᄌᆞᆾ'의 形態 交替와 同軌란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다. 다만 '여태'란 語形을 근거로 '今'의 새김을 '엳'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여태'의 'ㅎ'은 본래의 語根에 속한 것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 둔다.

'今良'의 讀音을 '여근/여ᄀᆞᆫ'으로 하게 되면 「金光明經」의 '餘良' 역시 '남ᄌᆞᄀᆞᆫ'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세 국어에서 '남ᄌᆞ기/남즈기, 남ᄌᆞᆨᄒᆞ다/남즉ᄒᆞ다, 남ᄌᆞᆺᄒᆞ다/남ᄌᆞᆾᄒᆞ다'란 어휘는 「金光明經」에 나타나는 '餘良'과 무리없이 연결된다. 만약 '餘ㅎ'이라면 '남ᄌᆞᆨ'에 해당할 것이며, '남ᄌᆞᆨ온/남ᄌᆞᆨᄒᆞᆫ'은 「金光明經」의 '餘良'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金光明經」의 '餘良'은 구문상에 있어서 국어 어순으로 푼다면 '餘良 無ㅅㄴㄱㅣㄹᄉᆞᆺ'가 되어, 번역하면 대체로 '남은 것이(/남음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이'가 될 것이므로 '餘良'은 체언화 형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 전기의 문법이라면 어미 '-ㄴ/은/온'은 체언화 기능도 담당한 것으로 理解되어 충분하다.

「金光明經」의 '餘良'의 '良'을 'ㅅ(ᄒᆞ)'가 생략된 표기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瑜伽師地論」의 '今良'의 '良'과 전혀 차이가 없다. 한편 이러한 표기에서 'ㅅ(ᄒᆞ)'의 생략을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남ᄌᆞᆨᄒᆞ다'와 더불어 '남ᄌᆞᆨ다'란 어휘가 형용사로 함께 쓰였으므로, '남ᄌᆞᄀᆞᆫ'은 '남ᄌᆞᆨ+온'으로 바로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餘良'을 '남ᄌᆞᄀᆞᆫ'으로 풀이하게 되는 것은 「大方廣佛華嚴經」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構文으로부터도 증거를 삼을 수 있다.

(5) 「大方廣佛華嚴經」의 '餘ㅅㄱ'[5]

가. 餘ㅅㄱ 無ㄹㅅㅂㅗᄉᆞᆸ(14: 4)

나. 有餘ㅅㄱ 無ㄹㅅㅂㅗᄒᆞᆷᄀᆞᆺ(14: 13)

다. 有餘ㅅㄱ 無ㄹㅅㅂㅗᄆᆞᄒᆞㄱ(14: 13)

라. 餘ㅅㄱ 無ㄹㅅㄴㅜᄉᆞㅂㅣ(14: 18)

---

5) 用例는 釋讀 口訣의 語順에 따라서 풀어서 제시한 것임. '餘ㅅㄱ'에 대한 用例와 解釋에 있어서는 李丞宰(1995)를 참조하였다.

「金光明經」에 나오는 '餘良 無ᄂᆞᆫᄀᆡ ᄆᆞᆺ' 의 '餘良'은 統辭的으로 (5)에 제시한 '餘ᄂᆞᆫᄀᆡ(餘ᄒᆞᆫ)'과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金光明經」의 '餘良'은 결국 動名詞 語尾 '-ㄴ/은/온'을 나타낸 語形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南豊鉉(1993)에서는 다음과 같은 「借字表記 詩經釋義」의 口訣을 바탕으로 '良'의 讀音을 'ㄱ/ᄀᆞ'로 추정하였다.

(6) 「借字表記 詩經釋義」에 쓰인 '良'[6]
가. 爾矣 子飛乙 支爲乙 其良乙(적을) 視乎隱代
나. 爾伊 室厓 伊時乙 其良乙(적을) 相乎隱代
다. 醉厓 爲良乙 良台亦(ᄒᆞᆫᄀᆞᆯ ᄀᆞ태여)

이러한 用例는 口訣字 '良'에 대한 讀音을 결정하는 데에 일정한 準據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良'의 用法이나 讀音이 변천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뿐이다. 本稿에서는 아직 「借字表記 詩經釋義」에 대한 硏究가 未備하여 이에 대한 論議는 後日을 기약하기로 한다.

2.2. 去(ᄀᆞᆺ/ᄀᆞᅀᆞᆯ) -거-

口訣字 '去'를 '-거-'로 讀音하는 것은 異論이 없는 실정이지만, 중세 국어의 선어말 어미 '-가/거-'와의 관련이나, 鄕歌에 쓰인 借字 '去'의 讀音, 그리고 高麗 時代의 釋讀 口訣에서 讀音으로 '-가-'에 해당하는 口訣字가 없다는 것 등을 염두에 둔다면, '去'에 대한 讀音으로서 '-거-'를 확고부동하게 연결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鄕歌의 '去'[7]
가. 去隱春皆理米(慕竹旨郎歌)
나. 四十八大願成遣賜去(願往生歌)[8]
cf. 他人亦現告爲乙去(大明律直解 1: 28)
難苦爲去(大明律直解 2: 5)
發露爲去(大明律直解 3: 8)
다. 法界毛叱所只至去良(禮敬諸佛歌)

(2) 중세 국어의 대응 용례
가. 내히 이러 바ᄅᆞ래 가ᄂᆞ니(龍歌 2章)
나. 길헤 딜가 저헤니라(金三 4: 57)
天縱之才ᄅᆞᆯ 그려ᅀᅡ 아ᅀᆞᄫᆞᆯ까(龍歌 43장)
다. 외오 혀다가 ᄲᅡᆨᄀᆞᆯ 삼게 ᄒᆞ가뇨(初杜解 16: 1)
香 퓌우ᄉᆞᆸ가니 부텻긔 信티 아니 ᄒᆞᅀᆞᄫᆞ려(月釋 23: 89)
엇뎨 搖落호ᄆᆞᆯ 相對ᄒᆞ얫가니오(初杜解 6: 31)
내 命 그추미ᅀᅡ 므더니 너기가니와(月釋 10: 4)
라. 구즌 相ᄋᆞᆯ 보거나 妖怪ᄅᆞᄫᆞᆫ 새 오거나(月釋 9: 43)

---

6) 用例는 南豊鉉(1993)에서 再引用하였다.

7) 鄕歌에서 '去'의 用例는 모두 16회에 이르지만 여기서는 語幹, 終結 語尾, 先語末 語尾로 쓰인 세 경우만 들었다.

8) 兪昌均(1996: 678-679)에서는 '成遣賜去'의 '去'를 정렬모(1965), 김선기(1973)와 마찬가지로 '立'의 誤記로 처리하여 '일우고시리'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의 '去'에 대한 처리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예로 든 바와 같이 「大明律直解」의 의문형 어미로 쓰인 '去'를 참조한다면, 이 경우의 鄕歌에 쓰인 '去'를 그대로 처리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ᄀᆞᄅᆞ매 비 업거늘(龍歌 20장)
어듸ᅀᅡ 됴ᄒᆞᆫ ᄯᅳ리 양ᄌᆞ ᄀᆞᄌᆞ니 잇거뇨(釋譜 6: 13)
프른 대예 몃 사ᄅᆞ미 올앗거니오(初杜解 20: 23)

鄕歌의 '去'는 주로 實辭인 경우 訓讀하여 '가'로 읽고, 虛辭인 경우는 音讀하여 '거'로 읽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관되게 '가'로 읽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중세 국어에서는 (2-다,라)에서와 같이 이른바 확인법 선어말 어미에 있어서 '-가-'와 '-거-'의 문법적 대립이 있었으며, '-가-'는 '-거-'에 선어말 어미 '-오/우-'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회상법 선어말 어미인 '-더-'와 '-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거-'와 '-더-'를 無標形으로 하여 이로부터 '-가-'와 '-다-'를 파생시키는 것은 15 세기 국어의 共時的 分析에 의한 결과일 뿐이며, 이러한 형태소 분석이 15 세기 이전의 歷史的 遡及形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나 당위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釋讀 口訣에서 '-거-'와 '-가-'의 相補的 形態가 나타나지 않으며, 역사 '-더-'와 '-다-'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그대로 해당된다. 오히려 釋讀 및 音讀 口訣에서 '-더-'보다는 '多(ㅣ)'에 의한 '-다-' 형태가 기본적인 것은 '去(ㅿ/ㅺ)'의 해석에 있어서도 하나의 指南이 된다고 할 수 있다.[9] 즉 이것은 人稱에 의한 形態素의 分化 이전에 역사적으로 '-가-'와 '-다-'가 形態的 原形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론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高麗의 釋讀 口訣에 쓰인 '去(ㅿ/ㅺ)'는 讀音에 있어서 '거'가 아닌 '가'로 읽혀야 한다는 것이며, 鄕歌의 用例는 이러한 讀法을 傍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한편, '가~거'와 '다~더'는 각각 母音調和의 雙이 된다는 것을 상기 한다면, 15 세기 중세 국어에서 인칭에 의한 이들 형태소의 대립은 일종의 음운론적 차이가 문법적 의미 차이로 변화 발전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추론이 옳은 것이라면, '거+오/우'가 '가'가 되고, '더+오/우'가 '다'가 된다는 것은 音韻論的 또는 音韻史的 過程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15 세기의 共時的인 文法的 解明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다.

2.3. 冬(ᄐᆞᆼ) -돌-

釋讀 口訣에서만 쓰인 '冬'은 否定辭 '不ᄐᆞᆼᄂᆞ-'의 표기에 나타난다. '冬'을 '돌'로 讀音하는 것은 音借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漢字音의 측면에서 그 借用의 과정이 불명확한 借字의 하나이다. 借字 '冬'은 鄕歌 및 吏讀 등에서도 맥락을 같이 하여 사용되었다. 釋讀 口訣, 鄕歌, 吏讀, 「三國史記」의 地名 表記에 사용된 '冬'의 用例를 간추려 들면 다음과 같다.

(1) 釋讀 口訣의 '冬'
가. 不ᄐᆞᆼᄂᆞᄀᆞ(金光明經 3: 2) / 不ᄐᆞᆼᄂᆞᆮ(金光明經 3: 7)
나. 不ᄐᆞᆼᄂᆞᄒᆞᄅᆡᄂᆞㅣ(舊譯仁王經 상: 3)
cf. 不ᄂᆞᄇᆞᄉᆞᆫ(華嚴經 14: 6)
不矣ㄲᆡㄹᄀᆞᄇᆞᆮ(舊譯仁王經 상: 14)

(2) 鄕歌의 '冬'
가.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慕竹旨郎歌)
阿冬音乃叱好支賜乎隱(慕竹旨郎歌)

---

9) 다만 口訣字 '多(ㅣ)'는 音讀 口訣에 이르러 회상법 선어말 어미로 쓰인 점이 특기할 만한데, 音讀 口訣에 있어서도 '多(ㅣ)'에 상대하는 相補的 形態인 '-더-'가 체계적인 상태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10) 兪昌均(1996: 92-96)에는 鄕歌의 '去'의 讀法에 있어서 한결같이 '가'로 읽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참고할 수 있다.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安民歌)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禱千手手觀音歌)
去奴隱處毛冬乎丁(祭亡妹歌)
秋察尸不冬爾屋攴墮米(怨歌)
仰頓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怨歌)
間王冬留讚伊白制(稱讚如來歌)
不冬喜好尸置乎理叱過(隨喜功德歌)
佛影不冬應爲賜下呂(請佛住世歌)
他道不冬斜良只行齊(常隨佛學歌)
不冬萎玉內乎留叱等耶(恒順衆生歌)
際毛冬留願海伊過(總結無盡歌)

(3) 吏讀에서 '不冬'의 讀音
가. 안더(吏文)
나. 안들(典律通補, 吏讀便覽, 儒胥必知, 吏文大師)
다. 알든(吏文襍例, 儒胥必知)
(4) 「三國史記」의 地名 表記에 쓰인 '冬'
가. 高句麗 地名('↔'는 異表記 地名, '→'는 改新 地名)
冬比忽 → 開城郡
毛乙冬非 → 鐵圓
冬斯肹 ↔ 栗木郡 → 栗津郡 → 菓州
冬音奈縣 ↔ 休陰 → 江陰縣 → 河陰縣
冬斯忽 → 岐城郡
冬音忽 ↔ 冬彡忽 ↔ 鼓鹽城 → 海皐郡
冬忽 ↔ 于冬於忽 → 取城郡 → 黃州
나. 百濟 地名
首冬山縣 → 平皐縣
未冬夫里縣 → 玄玆縣 → 南平郡
冬老縣 → 兆陽縣
冬音縣 → 耽津縣
다. 新羅 地名
武冬彌知 ↔ 曷冬彌知 → 單密縣
阿冬号縣 → 縣眞縣 → 安邑縣
古寧加耶國 → 古冬攬郡(古陵縣)
刀冬火縣 → 道同縣

釋讀 口訣의 借字 '冬'의 讀音을 '돌/들'로 하는 것은 傳來하는 吏讀의 讀音을 襲用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漢字音 '冬'과의 관련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論難이 없을 수 없다. 兪昌均(1996: 1127-1131)에서는 '冬'의 上古音의 어느 단계에 韻尾를 '-lk'로 想定하여 본래의 漢字音과의 맥락을 유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推定에 推定을 거듭한 논의이므로 당연히 信憑性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兪昌均(1996)에서는 梗攝의 朝鮮音에 있어서 韻尾의 '-ng'에 앞선 '-j-'의 출현에 주목하고, 이 경우의 '-j-'는 '-rng, -rk'와 같은 'r'帶複韻尾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11] 아울러 이러한 추정을 '冬, 喩, 等'의 上古音 韻尾에도 적용하여 다음과 같

11) 梗攝의 二等韻字인 '額 익, 笋 죵, 萌 밍, 陌 빅' 등과 같은 朝鮮 漢字音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朝鮮漢字音은 漢語 中古音과의 관련에서는 그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下向 二重母音의 半母音 'ㅣ'의 정체에 대하여 唐末宋初頃의 北部 漢音에 나타나는 口蓋的 韻尾의 영향으로 생긴 것이라는 有坂秀世

이 再構하였다.

(5) 兪昌均(1996: 1131)에서 再構한 '冬, 喩, 等'의 上古音
等 *tərg, *tərng
冬 *tərng, *torng
喩 *djərg, *djurg

兪昌均(1996)의 論議는 무엇보다도 '冬, 喩, 等'이 梗攝에 속한 漢字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r'帶複韻尾라는 것도 假說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漢字音과의 관련에서 '冬-돌'의 근거를 解明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難望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나)의 百濟의 地名에서 '冬~兆'의 대응과 '冬音~耽'의 대응이 주목된다. '冬~兆'의 대응에서는 '兆'의 朝鮮 漢字音이 '됴'이기 때문에 '冬'의 韻尾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冬音~耽'의 대응에서는 '冬音'이 'tVmV'의 音價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冬音'은 '둠~드미, 듬~드미, 돔~도미, 둠~두미' 정도의 語形으로 재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기의 관련에서 '冬'의 讀音은 'ᄃᆞ/드/도/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하진(1993: 88-99)에서는 '冬'의 吏讀式 讀音인 '돌'에 대해 신뢰하면서 (4)의 地名에 나타나는 '冬音'을 '도름'으로 讀音하였다. 아울러 '冬音(도름)'의 의미를 '海/河'로 파악하면서, '도름'은 'ㄹ'의 脫落과 音節 縮約에 의해 '돔'이 되는 것으로 理解하였다. '도름'의 의미를 '海/河'에서 찾고 있는 것은 '冬音奈縣 ↔ 休陰 → 江陰縣 → 河陰縣'에 나타나는 地名의 改新과 연결되므로 적절한 견해라 할 수 있으나, '冬音'을 '도름'으로 讀音하는 것은 '冬'의 吏讀式 讀法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冬音奈縣 ↔ 休陰'의 관계에서 송하진(1993: 95)에서는 '休'를 '(그만)둘-'로 보면서 '도름'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休陰'은 오히려 '두(다)+음'에 의한 '둠'으로 讀音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冬音 → 耽'의 관계도 바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冬'의 讀音을 'ᄃᆞ/드/도/두'로 추정하면 鄕歌의 '毛冬'은 '몯~모ᄃᆞ'의 語形을 나타낸 것으로 歸納되므로, 이 경우의 '冬'은 '몯~모ᄃᆞ'의 末音添記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不冬'을 '안돌'로 읽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懷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毛冬'과 '不冬'이 같은 語形에 대한 표기인지, 아니면 각각 '몯'과 '안'을 기반으로 한 표기인지 論外로 하더라도 최소한 '冬'의 讀音은 '돌/들'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吏文」에서 '不冬'을 '안더'로 讀音하고 있는 것은 '冬'의 讀音에 있어서 비교적 原形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12] 아울러 15 세기 中世 國語에서 '안돌'에 대한 語形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非 욀 비 又 안득 비(訓蒙 하: 29)'의 '안득'만이 나타나는 것은 '안돌'이란 어형이 吏讀의 讀法에서만 존재하는 虛構의 形態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兪昌均(1996: 285-288)에서 논의한 대로 '不冬~不喩~不等'이 동일한 語形에 대한 異表記 關係에 있다고 하면, 이것 역시 '冬'을 '돌'로 읽기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된다. '冬, 喩, 等'의 上古音에 대한 再構音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13]

(6) '冬, 喩, 等'의 上古音

	冬	喩	等
T	tông		təg/təng
K	tông	dju	təg/təng

(1957/1962: 324)의 論議 이래로, 河野六郎(1968/1979), 朴炳采(1971) 등에서 이 견해가 계속 踏襲되었다. 그러나 半母音 'ㅣ'의 정체는 韻尾보다는 梗攝 二等韻字의 前舌的 核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2) 「吏文」은 吏讀의 讀法을 보여주는 現存하는 最古의 文獻으로 알려져 있다.(安秉禧 1987: 18)

13) 周法高 編(1974) 「漢字古今音彙」에 의한 再構音이다. T는 董同龢, K는 Karlgren, C는 周法高이다. '喩'에 대한 董同龢의 再構音은 없다.

C təwng riew təy/təng

특히 '不喩'에 대한 傳來의 吏讀 讀音이 '아닌디/안디'라는 것은 '喩'의 上古音과 연결되고, 「訓蒙字會」에 나오는 '안득(非)'은 '等'의 上古音과 관련이 있는 듯하여 흥미롭다. 아무튼 '冬, 喩, 等'의 공통 요소는 聲母가 't/d'라는 점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자 한다.

'冬'이 韻尾를 제외한 'ᄃᆞ/드'의 音借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은 古代 國語의 開音節 構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表記에 나타나는 樣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論據를 확보할 수 있다.

(7) 二音節에 의한 末音 表記

가. 「三國史記」 高句麗 地名에서

及伐山郡 → 岌山郡 → 興州

('伐'과 '及, 岌'의 말음 'ㅂ'의 대응)

習比谷縣 → 習谿縣 → 歙谷縣

('比'와 '習'의 말음 'ㅂ'의 대응)

甲比古次 ↔ 穴口郡 → 海口郡 → 江華縣

('次'와 '곶(華)'의 말음 'ㅈ'의 대응)

나. 「三國史記」 百濟 地名에서

古尸伊縣 → 岬城郡 → 長城郡

('尸伊'와 '곶(岬)'의 말음 'ㅈ'의 대응)

所非兮縣 → 森溪縣

('非'와 '숨/숲(森)'의 말음 'ㅂ/ㅍ'의 대응)

豆夫只縣 → 同福縣[14]

('只'와 '福'의 말음 'ㄱ'의 대응)

다. 「三國史記」 新羅 地名에서

武冬彌知 ↔ 曷冬彌知 → 單密縣

('知'와 '密'의 말음 'ㄷ/ㄹ'의 대응)

比自火郡 ↔ 比斯伐 → 下州 ↔ 火王郡 → 昌寧郡

('自/斯'와 '빛(火/光)'의 말음 'ㅈ/ㅊ'의 대응)

(8) 韻尾가 反映되지 않은 表記

가. 何瑟羅 ↔ 河西良(三國史記, 高句麗 地名)

屈直縣 ↔ 屈旨縣(三國史記, 百濟 地名)

達己縣 ↔ 多己縣(三國史記, 新羅 地名)

나. 沙伏忽 → 赤城縣(三國史記, 高句麗 地名)

沙非斤乙 → 赤木縣(三國史記, 高句麗 地名)

所比浦縣 → 赤島縣(三國史記, 百濟 地名)

다. 伏忽郡 → 寶城(三國史記, 百濟 地名)

라. 押督 ↔ 押梁(三國史記, 新羅 地名)

沙梁部: 梁讀云道 或作涿 亦音道(三國遺事, 新羅 地名)

이와 같은 관련 표기에서 (7)의 음절말 장애음과 대응시킨 漢字 表記는, 비록 그 解讀에 있어서 정밀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障碍音이 音節末에 위치할 때, 不破되지 않고 外破되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표기로 本稿는 이해하고자 한다. 아울러 (8)과 같은 몇몇 유형의 三國의 地名

14) 아울러 '豆'와 '同'의 대응에 있어서도 韻尾의 脫落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表記에서, 본래 漢字音의 韻尾(final)가 表記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것도 一音節 漢字가 開音節 구조에 의해 韻尾가 당시의 傳承音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또는 二音節로 전환된 데에 주요한 음운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韻尾에 대한 이와 같은 표기 경향에 대해 단순한 표기상의 미비나 관용적 융통성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現代的 偏見에 해당할 수 있다. 오히려 古代 國語의 음운적 음절화와 같은 체계적 관점에서 이들의 複數 表記는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8-가)의 '瑟, 直, 達' 등은 애초부터 韻尾를 제외한 부분만이 音借되어 表記에 이용되었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응되는 '西, 旨, 多'는 음운적 대응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8-나)는 '赤'이라는 의미부에 '沙伏/沙非/所比' 등이 音借 表記로 대응하여 '伏'의 韻尾가 表記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15] 그러므로 '沙伏'은 애초부터 韻尾 '-k'가 없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며, '沙伏'의 韻尾가 脫落하여 '沙非/所比'의 형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8-다)는 統一 新羅의 改新 地名에서 '伏 → 寶'의 변화를 입은 경우이다. 이 경우도 원래의 音相을 유지하면서 지명이 개정된 경우라 할 때, '伏'의 운미는 당시의 표기에서 音借 表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8-라)는 '督/梁/道/涿'이 당시의 音價의 반영에서 모두 한결같음을 말해주는 예로서 變異 關係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督/涿' 등은 韻尾가 제외된 [to]에 가까운 음으로 표기에 반영된 것을 보여 주는 가장 확실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韻尾를 제외한 부분만을 音借하게 된 음운적 절차는 당시의 開音節 構造에 따라 韻尾가 잘 반영되지 않은 漢字音으로 재조정되었거나, 아니면 古代 國語의 開音節化에 의해 二音節로 발음되면서 앞 音節에 해당하는 부분만 표기에 이용되었다고 하는 것 등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16]

한편, 金完鎭(1985)에서는 '冬'의 讀音이 '돌'로 된 것은 '月'의 草書體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冬'은 訓讀字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三國史記」의 地名 表記나 鄕歌 등에서 '冬'의 用字는 音讀되어야 할 性格이므로 金完鎭(1985)의 견해는 首肯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요컨대 이와 같은 音韻論的 樣相과 함께 借字 '冬'은 音借에 있어서 '돌/들'이라기보다는 'ᄃᆞ/ᄃᆞ'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後述할 '矣'의 讀音과도 관련하여 좀더 論議될 문제이다.

2.4. 矣(ㅅ) -ᄃᆡ-

釋讀 口訣의 借字 '矣'는 대부분 連結 語尾 '-ᄃᆡ, -ㄴ댄, -란대'의 'ᄃᆡ/대'의 表記에 쓰인 것이며, 「金光明經」(3: 15)에서 '彼矣'의 '矣'는 助詞로 사용된 것이다.[17] 이미 梁柱東(1965: 419)에서 'ᄃᆡ/대/되'의 표기에 쓰인 '矣'를 '冬矣'에서 '冬'의 생략에 의한 形態로 파악하여 先鞭한 바 있으나, 安秉禧(1977: 95)에서는 口訣에 쓰인 '矣'를 訓讀에 의한 借字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語源的으로 依存 名詞 'ᄃᆞ'와 處格 助詞 'ᄋᆡ'의 결합형이라 할 수 있는 助詞로서의 'ᄃᆡ'를 '冬矣'로 표기했다면 이것은 音借이므로, 'ᄃᆡ'의 표기에 쓰인 생략형 '矣'도 이러한 경우에는 音借가 됨은 물론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鄕歌에 나오는 '冬矣'나 '冬是'를 'ᄃᆡ/듸'로 읽는 解讀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ᄃᆡ'에 대한 표기로서의 '矣'를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冬'에 대한 讀音의 처리와도 상호 관련되어 있다.

兪昌均(1996: 250-251)에서는 '矣'에 대한 讀音인 'ᄃᆡ'의 근거로서 '矣'의 上古音을 고려하였다. 즉 '矣'는 '矢'를 聲符로 하는 形聲字라는 점에서 '矣'의 上古音의 하나로서 'djəg'을 설정하여 讀音 'ᄃᆡ'와 연결시켰다. 그러나 이것은 'ᄃᆡ'로 읽히는 '矣'가 같은 문헌에서 분명히 '의'로 讀音되는 경우와

---

15) 金芳漢(1983: 115)에서는 '沙伏'에 대해서 *sapuk의 형태로 재구하고서 어말 '-k'의 탈락을 논의하였다.

16) 韻尾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표기의 예는 이 밖에도 '朱蒙 ↔ 鄒牟'(三國史記 13)와 같은 人名 表記나, '褥薩 ↔ 褥奢'(三國史記 40)와 같은 官名 表記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된다.

17) 白斗鉉(1997)에서는 이 경우의 '彼矣'를 '뎌ᄃᆡ'(저 곳에) 정도로 讀音하면서, 鄕歌 祭亡妹歌의 '此矣 彼矣'도 '이ᄃᆡ 뎌ᄃᆡ'로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정으로 생각된다. 특히 音借 表記에서 '矣'를 '더'로 讀音할 수 없는 것은 「三國史記」의 地名 表記인 '孔巖縣 本高句麗 濟次巴矣縣'에서 '巴矣'는 15 세기 국어의 '바회'의 語形으로 연결되므로, '矣'의 음이 '더'가 될 수 없는 反證의 하나이다.

3. 結論

<參考文獻>

金芳漢(1983). 「韓國語의 系統」 民音社.
金完鎭(1985). "特異한 音讀字 및 訓讀字에 대한 硏究" 「東洋學」 15. 檀國大學校 東洋學 硏究所.
南廣祐(1995). 「古今漢韓字典」 仁荷大學校出版部.
南廣祐(1997). 「敎學 古語辭典」 敎學社.
南豊鉉(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朴炳采(1971). 「古代國語의 硏究」(音韻篇) 高麗大學校 出版部.
白斗鉉(1997). "高麗 時代 口訣의 文字體系와 統辭的 變遷"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太學社.
송하진(1993). "삼국사기 지리지 지명의 국어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安秉禧(1977). 「中世國語口訣의 硏究」 一志社.
安秉禧(1987). 「吏文과 吏文大師」 塔出版社.
梁柱東(1965). 「古歌硏究」(增訂) 一朝閣.
兪昌均(1996). 「鄕歌批解」(補訂) 螢雪出版社.
有坂秀世(1957, 1962 再版). 「國語音韻史の硏究」(增補新版) 三省堂.
이건식(1995). "鄕札과 釋讀口訣의 訓讀末音添記에 대하여" 「國語史와 借字表記」 太學社.
이건식(1997). "釋讀口訣의 省略表記와 難解吐의 解讀" 「國語史硏究」 太學社.
李丞宰(1995). "動名詞 語尾의 歷史的 變化" 「國語史와 借字表記」 太學社.
정재영(1997). "고려시대 석독구결" 「문헌과 해석」 1. 태학사.
周法高 編(1974). 「漢字古今音彙」 香港中文大學出版社.
河野六郎(1964-1965). "朝鮮漢字音の硏究" 「朝鮮學報」 31-34, 41-44. 「河野六郎著作集 2」(1979, 平凡社)에 再收錄.

音借字에 관한 몇 문제

박 창 원(이화여자대학교)

차자 표기에는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다수의 음차자들이 있다. 차자 중에서 그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고, 또 많은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온 '叱'을 위시하여 '尸, 良, 賜' 등은 모두 그 음가 추정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해독의 타당성이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중 발표자의 글에서 논의되고 있는 '艮, 去, 冬, 矣' 등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자의 글에는 토론자와 비슷한 발상들을 볼 수 있어서 우선 반갑게 생각한다. 그런데, '토론을 맡아 달라'라는 명령(?)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갑다'라는 표현보다는 문제점이 없더라도 문제점을 만들어 '말을 주고 받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몇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1. 艮에 대해

'艮'은 古恨切 혹은 胡恩切로서 이것의 초성은 국어에서 'ㄱ'이나 'ㅎ'으로 대응될 수 있는 것이고, 종성은 운미 'ㄴ'이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성은 국어에서 '아, 어, 으, ᄋᆞ' 등이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국어의 음절을 표기하기 위해 유사한 한자를 사용하였다면 이것이 조합되는 음절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발표자가 '艮'을 'ᄀᆞᆫ'이나 '근'으로 읽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艮'이 사용되는 예는 '餘艮, 今艮' 등인데, 전자는 대비될 수 있는 다른 차자가 없고, 후자는 '今ㅅᄀᆞ, 今ㅅ' 등과 대비될 수 있다. '今ㅅᄀᆞ'은 '어근 + ᄒᆞ-'의 구조이므로, 어근을 음독할 것이냐, 훈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今'의 해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은 '今ㅅ'과 '今艮'으로 해독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발표자는 今ㅅ과 今ㅅᄀᆞ의 융합형으로 今ㅅㅅᄀᆞ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ㅅ이 탈락하여 今ㅅᄀᆞ이 된다고 했는데, 결과가 '우연히'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융합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 그리고, 16세기 형태인 '엳'을 몇 세기 전의 '역'으로 추론했으나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今'의 훈은 15세기의 번역문에서 일반적으로 '이제'로 나타난다. 훈몽자회나 몇몇 문헌에 '엳'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엳'과 관련된 어휘는 '여지껏, 여태' 등이다.

今은 이졔라(월석, 서:13)
녜며 이제샷다[古之今之](금삼, 2:58)
엳 今(훈몽, 하:2)

'이제'와 '여태'는 '지금'이라는 시간과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사용한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미래 지향과 과거 지향이라는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정확한 의미 해석은 이 부분의 전공자에게 맡김. 대체적인 뜻임)

이제 ᄯᅩ 내 아ᄃᆞ를 ᄃᆞ려가려 ᄒᆞ시ᄂᆞ니(석상, 6:5)
엿히 엇지 보내지 아니ᄒᆞᄂᆞᆫ다(첩몽, 1:19)

의미의 동질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한 형태소가 다른 음운론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이형태가 공존하게 되고 종국에는 의미의 분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와 '여태'의 분화 과정에 대한 추론은 생략함)

15세기 국어에서 '今'의 고유어 訓 '이제'는 '그제'와 대응되고, 그제는 '그적'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후자의 둘은 동일한 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제 부톄 올ᄒᆞᆫ 녀그로 도ᄅᆞ샤(월석, 9:36)
그저긔 ᄲᅡᆺ 마시 ᄲᆞᆯᄀᆞ티 돌오(월석, 1:42)

'그제, 그적'이 동일 어원인 '그저기' 정도로 재구될 수 있고, '그제'는 어중 'ㄱ'의 약화에 의해 '그적'은 어말 'ㅣ'의 탈락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적, 그저기'에 대응되는 '이적, 이저기'의 형태를 유추하여 재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今ㅅ'의 ㅅ은 今('이적' 혹은 '이저기')의 末音을 표기하는 것이고, '今ᄇᆞᆫ'의 'ᄇᆞᆫ'은 末音과 '온/은'이 결합한 것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남은 문제 : '온/은'의 문법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2. '去'에 대해

'去'를 '가'로 훈독할 수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두어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같다. 하나는 '가'와 '다'가 형태적 기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음운론적 차이가 문법적 의미 차이로 변화 발전한 결과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인식이다. 발표자의 논의대로 의도 내지는 1인칭을 의미하는 '가'와 '다'가 선어말 어미의 기원이라면,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ᄂᆞ-'가 선어말 어미 '-오-'와 결합하여 '-노-'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발표자의 논의대로라면 '-노-'가 형태적 기원이고 '-ᄂᆞ-'는 '변화 발전'한 결과가 되는데 이것의 설명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 기원적인 형태 즉 의도법이나 1인칭에서 의도를 나타내지 않거나 2·3인칭이 될 때 형태소의 분리가 발생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논의인가?

흔히 말하는, 모음 전환(ablaut)이란 하나의 모음이 모음 조화의 짝을 이루는 모음으로 전환되면서 의미 기능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리를 확대시켜 발표자와 같은 추론도 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문법적인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음운적인 차이가 분담을 했다는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음운적인 차이가 문법적인 의미 차이로 변화 발전한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려운 추론이라고 생각된다. 선어말 어미가 단일형으로 있었을 때 의도나 일인칭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었다면 그러한 문법 범주 자체가 없었다는 결론이 되고, 만약 있었다면 '다'가 '더'로 혹은 '가'가 '거'로 교체되면서 그러한 문법 형태소를 없애버렸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는 '多'나 '去'가 가지고 있던 음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적어 두면 다음과 같다. '多'는 過攝으로 中古 시기 핵모음의 음가는 대체로 a나 이와 유사한 음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대 중국음의 모음 음가는 uo이다. '去'는 (丘據切 口擧切) 遇攝으로 中古 시기의 음가는 iɔ나 iɔ로 추정되고 있다.

3. '冬'과 '矣'에 대하여

'冬'을 '돌/들'로 해독하거나 '矣'를 '딕/듸'로 해독하는 것이 해독의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冬의 경우 말음에 대해, 矣의 경우에는 초성에 대해 그 해독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冬의 해독인 '돌/들'에서 말음 ㄹ을 무시하고, 矣의 해독인 '딕/듸'에서 초성 ㄷ을 무시하는 것은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矣의 해독에 대해서는 졸고(1986)에서 논의한 바 있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차자 표기의 변화와 국어 형태소의 변화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矣가 초기에는 '의/이'를 표기하기 위해 차자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 '딕/듸'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런 경우에까지 본래의 음인 '이/의'를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결 표기에서 '愛ㄱ矣'나 '愛ㅅ ㅁ'와 같은 표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호대/딕'로 해독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에 대신하여

특이한 음차자라고 지칭되어 온 차자들을 대할 때마다 토론자가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한두 생각들과 본 토론에서의 요지를 적으면서 맺기로 한다.

1. 언어가 100년 20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15세기의 편견으로 과거를 보지 말자. 예를 들어 '尸'가 15세기의 'ㄹ'이나 'ㄹㅎ'에 대응된다고 해서 '尸'의 음가라고 하는 것은 15세기의 편견에 의한 것이다.

2. 차자 표기의 변화와 국어 형태소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자. 차자 표기의 보수성으로 인해 그 문자가 지칭하는 음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今ㅅ'은 '이적' 혹은 '이저기' 정도로 해독될 수 있고, '今良'은 '이저ᄀᆞᆫ'으로 해독될 수 있다. '多, 去'등이 음차자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음가를 15세기의 '다, 거'로 바로 대비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冬, 矣' 등이 초기에는 각각 'ᄃᆞ/드/도/두', 'ᄋᆡ/의'와 관련된 음을 표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후기에는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